

참 사람이신 예수님(누가복음 강해 6)

성경말씀: 눅2:39-52

지난 주: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의롭게 살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유일무이한 존재,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됨. 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움.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무디의 설명, 개미들, 홍수

예수님은 중재자여야 한다. 중재자가 공평하게 중재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지혜, 말, 하나님임을 인식한 것으로
오해함, No!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열두 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40)

1. 키가 자랐다. 모든 사람처럼 태어나서 기저귀에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먹고
키가 자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옷을 갈아 입혀 주었고, 아기가 입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 하면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말이다.”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다.
2. 영이 강하게 되었다. 인격체는 지정을 갖는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
3. 지혜가 충만하였다. 지식과 분별력, 이 둘은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함(요3:34). 한량없이 받음
4.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자신의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넘쳐흘러남
5. 참 사람이셨다(누가의 반복): 눅2:52에 기록된 대로 지혜와 키가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6. 어떤 사람의 말: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었음을 믿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만 믿는다.” No!
7. 그분은 분명히 아기로 오셨고 한 여인이 그를 돌보아야만 했다. 한 여인이 그를 보살피고, 먹여주고,
씻어주어야만 했다. 한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을 씻어 주어야 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한다(딤후3:16).
8. 예수님은 요1:1; 17:5처럼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요1:14)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고전1:25). 유일한 방법
- 9 그 이유: 100% 사람이야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할 수 있다(히
4:15-16). 히5:7-10의 필요성
10.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바울은 빌2:5-11에서 설명한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셨다.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 말라 하기도 하시며 잠도 주무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신음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100%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

이러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있게 기적들과 함께 행하셨다.

이 같은 두 본성의 연합은 출생 시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여느 아이와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100% 사람이셨다(2:52).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의 두 본성 인식: 예루살렘 방문(41-50)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예수님도 12살에 올라가심: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됨

물론 그 전에도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올라갔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중요하므로 누가가 기록함

예루살렘 경배 후 돌아가는 데 예수님은 그대로 남음: 하룻길을 간 뒤에 없어진 것을 앎.
마리아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종교가 있다: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허사다.

사흘 동안 찾다가 드디어 그분을 성전에서 만남(46): 성경박사들과 함께 앉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함. 그분의 말은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람(47): 눅20장에도 동일한 일, 성령님의 지혜 성전에서 무엇을 읽으셨을까? 당연히 구약성경 두루마리

창3:15, 시2:7, 사6:4; 9:6, 53:4-5

이런 구절들을 읽고 박사들과 대화하며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생아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고 말한다 (48). 예수님은 자기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49).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33절, 4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개역성경 NIV, 그의 부모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됨.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반드시 왕국을 선포해야 한다(눅4:43).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눅9:22). 나무위로 들려야만 한다(요 3:14)

그 사명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히10:5, 9),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일,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깨닫지 못함

심지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함(마16:21-22).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51-52)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향하며 삶: 요셉은 가난한 목수, 예수님도 목수로 가업을 이어가며 복종함.

예수님의 특징(52):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 호감 있는 존재 골2:3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52). 부모에게 순종

바르게 듣고 물을 줄 알아야 한다(46).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바른 것을 묻고 대답하며 키가 지혜가 자라서 18년이 지나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눅3:22)

우리 역시 이런 칭찬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으셨다.

1. 가정교육, 2. 순종 교육, 3. 땀 흘리는 교육, 4. 사회 의식 교육, 5. 외로움 교육: 요셉과 마리아 심지어 6명의 동생들도 그분을 알지 못함, 6. 회당 교육, 7. 자연 교육, 8. 반복되는 일상의 교육, 9. 18년간 기다림의 교육, 10. 시험과 유혹의 교육, 11. 경험의 교육, 12. 섭리의 교육
-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완벽한 남자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성장해서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